



▲ 제 82회 불교총지중 추계강공

제82회 불교총지중 추계강공 봉행

청정 계율로 승단의 위의를 높이자

불교총지중 제82회 추계강공이 10월22일 오후3시 거제 대명리 조트 에머럴드 대회의실에서 개강불사를 봉행하고 2박 3일간 열렸다.

효강 종령 예하, 기로 스승, 법등 통리원장, 수현 중앙종회 의장, 법상인 사감원장, 화령 중앙교육원장, 충청.전라 환수원 교구장, 부산.경남 시정 교구장, 서울.경인 법우 교구장, 대구.경북.교구 안성 교구장 및 통리원 집행부와 전국의 스승들이 전원 참석하였다.

개강불사에서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를 통해 “거제 앞바다는 모든 것을 품은 만다라의 세상 같습니다. 스승은 청정한 계율 속에 용맹정진하여 중생을 불법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또한 교상과 사상을 증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서원합니다”라며 강공에 임하는 스승들의 청정 계율과 수행을 당부했다. 법등 통리원장은 “짧은 시간이나마 효강 종령 예하의 뜻을 받들어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강공에서는 법장원 김종인 연구원의 ‘일본의 재가불교’, 기로스승 법공 정사의 ‘교화 발전에 대하여’, 교정부장 원당 정사의 ‘진언 염송의 기본자세’, 벽룡사 주교 법일 정사의 ‘대일경의 식재법’,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의 에니메이션과 전 세계 만트라 음악을 통한 옴마니반메흠 독송에 관한 강의가 이어졌다.

24일 오후에는 거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진곤 종립동해중학교 총동창회 회장이 강공 자리에 방문하여, 스승님들께 인사를 드렸다.

이 자리에서 김진곤 회장은 거제특산물 100여 상자를 전달하고, 강공원만과 총지중 교세발전, 종립 동해중학교가 명문 사학으로 발전하기를 서원했다.

25일 오전 11시 3일간의 강공과 승단총회를 마친 불교총지중 스승들은 종강불사를 봉행하고 전국의 교화 현장으로 돌아갔다. (관련기사 3,5,7,9,11면)

거제=김종열 기자.

제2회 만다라배 불교축구대회 봉행

10월 19일 미사리 조정경기장 잔디구장에서

불교총지중과 FC붓다가 공동 주관하는 제2회 만다라배 불교축구대회가 10월 17일 미사리 조정경기장 잔디축구장에서 봉행되었다.

불교총지중 총지드레곤스, 진각종 진각 FC, 조계종 봉은사, 전국사암연합회, 한국불교기자협회, 대한불교청년회, FC 붓다, 광동고등학교 사제팀, 총8개 팀이 출전한 이번 대회는 전국사암연합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해 우승을 차지한 총지중 축구단 총지드레곤스는 아쉽게 3위에 그쳤다.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법등 정사,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 총무부장 인선 정사, 교정부장 원당 정사, 서울.경인 교구장 법우 정사, 진각종 총무부장 덕정 정사, 전국사암련 회장 각성 스님, 미안마 문화원 목탁 스님 등이 동참한 개회식 오전 10시 열렸다.

주관 종단인 불교총지중 통리원장이자 이번 대회 대회장 법등 정사는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우리 총지중에서는 불교 축구인 들이 축구를 통하여 정중등, 동정중의 지혜로운 정신으로 더욱 보람

있는 일상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며 축구를 통해 생활불교를 실천하기를 서원했다.

대회조직위원장인 불교총지중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는 “작년에 이어 제2회 만다라배 불교축구대회가 원만히 성사된 것에 대하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대회를 통하여 청년 불교도들의 씩씩한 기상을 널리 알리고 서로간의 화합과 우의가 더욱 돈독해 지기를 서원합니다”며 대회를 통해 불교도의 우정과 신심이 증장되기를 당부했다.

이어 대회운영위원장인 FC 붓다 이동격 단장은 “축구를 통한 불교인들의 단합과 유대를 지향하며 시작된 이대회가 올해도 원만하게 진행되고 아울러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라고 대회의 원만한 진행과 발전을 기원했다.

시축을 끝으로 개회식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대회 일정이 시작되었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준결승에 진출한 총지드레곤스, 진각종 FC, 광동고등학교 사제팀, 전국사암

연합회가 올랐다.

준결승 제1경기는 예선에서 FC 붓다를 꺾은 총지드레곤스와 봉은사를 이긴 진각 FC가 맞섰다. 전, 후반 각 15분씩 치열한 공방을 펼친 양 팀은 0:0 무승부로 연장전 승부차기로 이어졌다. 승부차기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3;2로 진각종이 승리했다.

준결승 제2경기는 광동고 사제팀과 전국사암연합회팀이 각축을 벌여 전국사암연합회팀이 3:0으로 결승이 진출했다

마지막 경기로 치러진 결승전에서 맞붙은 진각 FC와 전국사암연합회팀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줬다. 최후의 승자는 전국사암연합회팀으로 돌아갔다.

폐회식에는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법등 정사가 우승 트로피와 부상을 전국사암연합회 팀에게, 진각종 회장 통리원장이 준 우승팀인 진각FC에게 트로피와 부상을 수여했다.

미사리조정경기장 잔디구장=김종열 기자



▲ 제2회 만다라배 불교축구대회 참가자 일동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시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시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시다.



정통밀교 불교총지중 괴산 중원사 및 수련원 신축불사

불교총지중의 오랜 숙원인 괴산 중원사 및 수련원 신축불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전 스승과 교도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용맹정진 서원하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일대 **태강계 만다라 중대팔연원이 봉우리로 둘러싼 비로자나 부처님 상주처**의 너른 터에 건립되는 이번 불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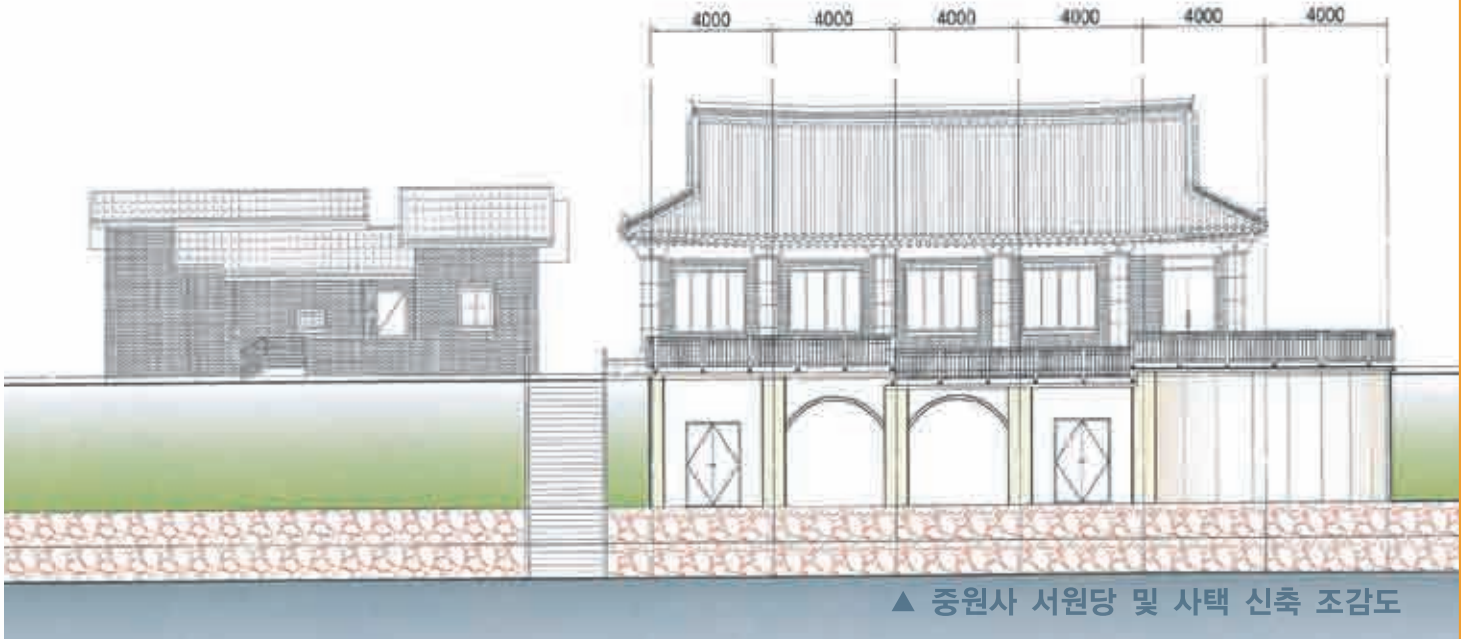
부처님께서는 말씀 하시기를

“만약 사람이 큰 신심을 일으켜서 못과 숲이 있는 동산을 보시하여 사방의 모든 스승님과 스님들이 경행(經行)하고 쉬고 머무는데 쓰게 하면, 이것이 제일의 무진공덕이니 큰 과보가 있으며, 만약 사람이 큰 신심을 일으켜서 그 숲속에 정사(精舍)를 짓고 여러 스승님과 스님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머물게 하면, 이것이 제일의 무진공덕이니 큰 과보가 있다. (존나경. 尊那經)」 불교총전 p.579「보시의 공덕」 19. 큰 과보를 얻는 다섯 가지 보시

『존나경』의 말씀처럼 모든 스승과 교도 및 모든 불자들이 ‘정통밀교 불교총지중의 **‘진언염송의 경진 수행도량 괴산 중원사와 수련원’** 신축 불사에 무로 동참하시어 재난 소멸과 복덕을 증장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불교총지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6-2 전화:(02)552-1080 팩스:(02)552-1082



동참계좌 : **우리은행 122-09583-01-001**
(예금주: 불교총지중)

동참문의 : 불교총지중 통리원 전화 02)552-1080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에 자승 스님 당선



▲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당선소감을 말하는 자승 스님

10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이 당선되었다.

이날 선거인단 311명 가운데 179표를 득표하여 유력한 경쟁 후보 스님인 전 중앙총회의장 보선스님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당선되었다.

자승 스님은 당선 직후 조계사 대웅전을 찾아 부처님 전 인사를 올리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당선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승스님은 “이번 선거를 통해 소납은 다시 한 번 ‘총무원장’

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소납의 당선은 청정한 수행풍토를 진작하고, 종단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구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염원하는 종도들의 의지가 모인 결과입니다.”며 스님을 선택한 종도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토적성산(土積成山)이라고 했습니다. 한 줌의 흙이 쌓여 태산을 이루듯이 소납은 이번 선거 기간에 모인 종도들의 해안과 고견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또한 항상 초심의 자세로 스스로를 타마하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소임자로서 헌신의 발걸음을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길은 결코 소납 혼자 힘으로 열 수 없습니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말처럼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종도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격랑의 바다를 함께 헤쳐 나가는 도반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수행풍토 진작과 종단 발전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발심의 자세로 돌아가 수행풍토 진작과 종단 발전에 화합의 힘을 모아 주기를 당부했다.

10월 11일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는 총 24명 가운데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차회의에서 제34대 총무원장 당선인 자승스님의 인준안을 가결했다.

조계종 중법 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무원장 당선인을 원로회의에 통지하면 10일 이내에 임준을 하도록 되어있다.

원로회의 인준안이 통과됨으로 자승 스님은 새로운 집행부 인선과 취임법이 일절 마련에 들어갔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김종열 기자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장기기증자 천도제 봉행

-10월13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장기기증자 천도제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가 10월 13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장기기증자를 위한 천도제를 봉행했다. 제19회를 맞

은 장기기증자를 위한 천도제는 생명나눔실천본부가 1994년 창립한 이후 해마다 봉행하고있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다른 이를 위한 자비심을 실천한 영가를 추원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함이다”라며 장기기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천도제의 의의를 설명했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는 10월 5일 ‘2013 불암사 생명음악회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100명 이상 추천하여 명예의 전당에 오른 대한불교삼론종 중앙총회의장 지경 스님, 총회의원 정연 스님, 총무부장 성우 스님, 동국대학교 참사람봉사단에 명예의 전당패를 전달했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발전과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한 배려와 보시가 우리 사회에 더욱 아름답게 퍼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장기기증활성화 운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서원했다.감사 인사를 전했다.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남양주 불암사에서는 국화축제를 열어 질어가는 산사의 가을의 정취를 사부대중들에게 전하고 있다.

김종열 기자

진각종 회당대종사 열반50주기 추념불사 봉행

-10월 16일 진각문화전승원 무진설법전에서 봉행



▲ 진각종 회당대종사 열반50주기 추념불사

진각종(통리원장 회정 정사)은 10월 16일 오후 2시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진설법전에서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열반 50주기 추념불사를 봉행했다.

추념불사에는 성초 총인, 해일, 경해, 혜정, 수성 정사 등 원로스승들과

통리원장 회정 정사, 교육원장 경당 정사,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장 증광 정사, 총금강회 서울지부장 일현 각자, 김경기 위덕대학교 총장, 손 열 연세대학교 교수 등 서울교구 스승 및 종립학교장, 신행단체장, 진각복지재단 산하

시설장 등이 동참했다.

사회부장 호당 정사의 사회로 진행된 추념불사에서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추념사를 통해 "종조님께서는 '체함이 곧 법문이요 사실이 곧 경전'이라는 가르침으로 생활 속에서 참된 깨달음을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면서 회당 대성사의 가르침에 따라 체함과 사실 속에서 참회와 수행으로 참다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증하고 지은보은행을 사회에 구현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총인원 내 답주심인당과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열반성지 불승심인당을 비롯해 등 진각종 각 심인당에서 도 50주기 열반절 불사를 일제히 봉행했다.

김종열 기자

제15회 부산 불교 팔관회 봉행

-26일 삼광사에서 국왕행렬 재현



▲ 제15회 부산 불교 팔관회(삼광사)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이하 부불연)와 (사)부산불교연합신도회가 공동 주최하고 팔관회가 주관하는 부산 「팔관회」가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각종 명륜심인당, 천태종 삼광사, 조계종 범어사에서 봉행되었다.

10월 15일 진각종 명륜 심인당에서 ‘팔관회 학술세미나’를 시작으로 봉행된 팔관회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천태종 삼광사에서 산사 힐링 영화 ‘길 위에서’ 상영과 호국위령대제, 국왕행렬 재현, 팔관회 호국기원법회, 팔관회 대신조하의식 재현, 팔관회 백회가무가 펼쳐졌다.

26일 천태종 삼광사에서는 호국영령 위령대제가 (사)부산영산재보존회 50여명의 스님들이 참가해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장엄한 위령재를 올렸다. 이어 허남식 부산시장이 참여한 국왕행렬 재현과 호국 기원법회가 봉행되었다.

부불연 상임부회장 진각종 범석심인당 주교 효원 정사의 개회선언, 회장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의 대회사, 수석부회장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의 호국기원문, 사무총장 범산 스님의 축원, 허남식 부산시장의 고불문,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이윤희 회장의 봉행사, 부산광역시의회 김석조 의장의 축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부불연 회장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은 대회사에서“우리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축제인 팔관회의 정신이 꽃피어서, 앞으로 부산불교는 물론 우리나라가 더 번성하고 한반도에 안정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 드립니다.”라며 팔관회의 공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했다.

수석부회장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인왕경 제5품 ‘호국품’ 중에서 보명왕을 위해 법사께서 설하신 계송을 모두 함께 염송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지종 부산 만다라 합창단(단장 김윤경) 10여 명이 부산불교연합합창단으로 참가하여 부처님께 음성공양을 올렸고,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 했다.

부산 삼광사= 김종열 기자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눕니다

일원어린이집				관 성 사				김 봉 기				10/16				10,000				벽 룡 사				양 지 현				10/10				10,000				일원어린이집				해 정 사				박 종 석				9/30				20,000																											
구 미 자				9/2				10,000				인 선				10/21				20,000				무 명 씨				10/10				10,000				이 지 민				9/26				10,000				최 영 레				10/21				10,000																							
하 명 순				9/16				10,000				신 막 심				10/2				10,000				무 명 씨				10/10				10,000				최 복 란				9/27				10,000				화 음 사				강 순 란				10/2				5,000																			
이 준 동				9/25				10,000				해 정				9/30				10,000				부산경남지회일동				9/27				5,000,000				서 선 숙				9/27				10,000				흥 국 사				지 정				10/11				20,000																			
김 지 연				9/25				10,000				대 관				10/21				10,000				삼 밀 사				우 귀 연				10/10				20,000				김 지 영				9/28				10,000				김 갑 선				10/21				10,000																			
정 각 사				김 문 수				8/30				10,000				대 자 행				10/21				10,000				선 립 사				박 호 란				10/10				10,000				구 미 자				9/30				10,000				9월26일부터 10월25일까지 알 림 _ 8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미기재 보시금은 금번호에 다시 게재합니다.																							
구 정 희				9/11				20,000				밀 공 정				10/21				10,000				성 화 사				임 영 찬				9/27				100,000				하 명 순				10/15				10,000																															
김 문 수				9/17				10,000				법 수 원				10/21				10,000				우담바라회				10/11				40,000				서 선 숙				10/25				10,000																																			
박 후 회				9/25				10,000				법 장 화				10/21				10,000				수 계 사				안 주 화				9/30				10,000				김 지 영				10/25				10,000				이 준 동				10/25				10,000																			
지 인 사				허 성 동				9/12				30,000				법 지 원				10/21				10,000				수 인 사				김 봉 기				9/26				10,000				이 준 동				10/25				10,000				김 지 연				10/25				10,000															
승 효 계				9/13				10,000				불 멸 심				10/21				10,000				무 명 씨				10/2				20,000				김 지 연				10/25				10,000				구 정 희				10/16				60,000																							
지 성				9/13				10,000				사 흥 화				10/21				10,000				승 천 사				원 봉				10/11				10,000				정 각 사				원 정 언				10/2				30,000				지 인 사				승 효 계				10/11				10,000											
총 지 사				법 등				9/2				30,000				상 지 화				10/21				10,000				지 선 행				10/11				10,000				시 법 사				선 도 원				10/21				10,000				실 보 사				이 순 옥				10/16				10,000											
김 병 관				9/13				10,000				수 증 원				10/21				10,000				선 도 원				10/21				10,000				시 법 사				선 도 원				10/21				10,000				실 보 사				이 순 옥				10/16				10,000															
통 리 원				김 지 영				9/2				5,000				총 지 화				10/21				10,000				조 순 애				10/24				60,000				실 지 사				정 경 자				9/26				10,000				월 명 심				10/2				10,000															
화 음 사				강 순 란				8/30				5,000				법 연 지				9/27				10,000				정 경 자				9/26				10,000				송 우 섭				10/4				5,000				이 순 명				10/16				50,000				일원어린이집				하 재 희				9/26				30,000			
류 재 환				9/17				10,000				만 보 사				정 덕 순				10/2				10,000				월 명 심				10/2				10,000				송 우 섭				10/4				5,000				이 순 명				10/16				50,000				하 재 희				9/26				30,000							
지 정				9/13				20,000				밀 인 사				정 정 희				10/1				5,000				이 채 원				10/20				10,000				하 미 영				9/26				10,000				조 성 기				9/27				10,000																			
원 정 언				8/28				30,000				이 연 주				10/20				10,000				양 정 현				10/10				10,000				하 미 영				9/26				10,000				조 성 기				9/27				10,000																							
김 갑 선				9/23				10,000				관 성 사				황 성 녀				9/27				10,000				관 성 사				김 봉 기				10/16				10,000				관 음 사				신 막 심				10/2				10,000				기 로				해 정				9/30				10,000							
무 명 씨				10/10				30,000				관 성 사				김 봉 기				10/16				10,000				관 음 사				신 막 심				10/2				10,000				기 로				해 정				9/30				10,000				관 성 사				김 봉 기				10/16				10,000							
강 순 시				10/18				10,000				관 성 사				김 봉 기				10/16				10,000				관 음 사				신 막 심				10/2				10,000				기 로				해 정				9/30				10,000				관 성 사				김 봉 기				10/16				10,000							
황 성 녀				9/27				10,000				관 성 사				김 봉 기				10/16				10,000				관 음 사				신 막 심				10/2				10,000				기 로				해 정				9/30				10,000				관 성 사				김 봉 기				10/16				10,000							

총기 42년 선대 열반 스승 추선불사 봉행 -열반 스승의 왕생성불을 서원



▲ 총기 42년 선대 열반 스승 추선불사

10월 17일 오후2시 불교 총지종 본산 총지사에서 열반스승 추선불사가 봉행 되었다. 추선불사에는 효강 종령 예하, 범등 통리원장, 수현 중앙종회 의장, 인선 총무부장, 우인 재무부장, 중앙종회 의원 ,기로스승, 서울, 경인교구(교구장 범우 정사) 스승, 신정회 서울, 경인 지구 김은숙 회장 등이 동참 했다.

총무부장 인선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된 불사는 개식사, 대비로자나불전 호념, 훈향장공, 무상계 독송, 유가삼밀과 광명진언, 실지정진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추선불사는 총지종을 발전과 교화의 밑거름이 된 열반스승님들에 대한 왕생성불을 추념하는 불사다. 법회에서는 종조 원정 대성사 외 27명의 열반 스승들의 영식왕생성불과 유언영식왕생성불을 서원했다.

총지사=김종열 기자

제130차 불교총지종 승단총회 개최

종의회 보선으로 정인화 전수, 정원심 전수,
록경 정사, 법선 정사 선출

불교총지종은 8월 23일 거제 대명리조트 에머럴드 홀에서 제130차 승단총회를 개최했다.

효강 종령 예하의 주재로 열린 이번 승단총회는 지난 중앙종의회 의결사항, 종단 주요 현안 보고, 종회의원 보궐 선거가 있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효강 종령 예하는 개회사를 통해 “승단총회에 참석하신 전국의 스승님들은 총지종의 기본 수행법인 육자진언 염송 수행에 한 치의 퇴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스승님들의 수행정진력 만이 교화를 가장 잘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며 진언염송의 융맹정진을 당부했다.

중앙종의회 보궐 선거에서는 정각사 정인화 전수, 관음사 정원심 전수님, 건화사 록경 정사, 정각사 법선 정사가 중앙종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어 통리원장 범등 정사는 중앙종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보고와 괴산 수련원 공사현황,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모범교도 스승 입문 기회 부여, 종유 재산 조사단 구성, 교화발전 부분, 복지사업 부분, 수익 사업부분 등을 설명하였다. 약 2시간 동안



▲ 제130차 불교총지종 승단총회

진행된 승단총회는 종단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거제=김종열 기자

부산 정각사 가을 관불 경북 청송 주왕산 주산지로



부산 정각사 신정회는 10월 30일 경북 청송군 주왕산 주산지로 가을 관불을 다녀왔다. 정각사 정인화 스승님 및 강경중 전 동해중학교 교장선생님 등 교도 50여명이 동참했다.

가을 주왕산은 붉게 물든 노을처럼 아름다운 단풍들로 교도들을 맞았다. 보살님, 각자님들의 웃음 소리와 맛있는 공양으로 즐거움을 더했다. 교도들은 모처럼의 가을 나들이로 단합의 시간을 갖고 더욱 더 진언 염송 융맹정진을 다짐했다.

부산 정각사= 이상록 통신원, 사진 김병구 소장

「종유 재산 조사단」 발족

-단장에 범우(중앙종의회 부의장) 및 위원 7명으로 구성

총지종 통리원은 제130차 승단 총회에서 보고된 「종유 재산 조사단」을 구성했다. 10월 29일 통리원장 범등 정사는 범우 중앙종의회 부의장을 단장에 임명하고 재무부장 우인 정사, 교정부장 원당 정사, 사감위원 승원 정사, 종회의원 법일 정사, 서령 정사, 덕광 정사, 유지재단 이수협 계장을 임명했다.

종유 재산 현상 조사단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종단 소유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구성되었다. 조사단은 사전 검토 작업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제1차 현장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통리원= 장동욱 과장

불교총지종 총기42년 중앙종의회 개최

-원의회, 재단이사회, 복지재단이사회도 열려

10월 17일 총지종 통리원 2층 반야실에서 총기42년 중앙종의회(의장 수현 정사)를 개최했다. 중앙종의회 의장 수현 정사의 개회로 시작된 이날 회의는 종회의원과 범등 통리원장, 인선 총무부장, 우인 재무부장 그리고 통리원 담당 교무들이 참석했다.

이번 종의회에서는 총기 42년 추경예산안 및 총기 43년 예산안, 복지재단 외부이사 추천의 건 등을 심의하였다. 이에 앞서 원의회와 유지재단이사회, 사회복지재단이사회도 개최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 결의했다.

통리원=장동욱 과장

▲ 불교총지종 총기42년 중앙종의회

신정회 부산·경남 지회 전주 흥국사 만다라 요양 방문

-금일봉전달 및 노인요양원 발전 서원

신정회 부산·경남 지회(지회장 신인록)는 10월 16일 전주 흥국사 만다라 요양원을 방문하였다.

신인록 지회장 외 23명의 신정회원들은 흥국사 주교 지정 정사의 집공으로 ‘만다라요양원 발전서원’ 불공을 올렸다. 이 자리에서 신인록 지회장은 만다라 요양원에 금일봉을 전달하면서 “총지종의 복지시설이 더욱 발전하여 부산·경남 지역에도 노인 요양 시설이 하루 속히 건립되기를 서원합니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법회 후 부산·경남 지회는 지정 정사의 안내로 김제 금산사를 참배하고, 가을 산사의 아름다움을 관불하였다.

부산 정각사 = 이상록 통신원

▲ 전주 흥국사를 방문한 신정회 부산·경남 지회

불교 총지종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www.chongji.or.kr

총지종보를 이웃과 함께 합시다.
구독신청 _ 불교총지종 통리원 전화 _ 02)552-1080 E-mail _ kimjongyeol@chongji.or.kr

만보사 서원당 만다라 봉안불사

총지화전수님의 원력과 만보사 신도님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정성으로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친필 축원과 서명이 담긴 만다라를 봉안할 예정입니다.

만보사 만다라 봉안불사 에 두루 동참하시고 권선하시어 무량공덕 쌓으시고 부처님의 가피 입으시길 바랍니다.

은행계좌 : 새마을 금고 3101-09-010585-6
(예금주: 서진업 (재) 불교총지종유지재단)
☎ 042-255-7919 주 교 : 승 원 정사 / 묘원화 전수
신정회장 : 민순분 합장

불교의 선정 23

사념처 수행

법 념 처

법의 의미와 법념처 수행의 목적

사념처의 마지막인 법념처 수행은 일체의 존재와 현상에는 ‘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한 것이다. 즉, 일체법무아(一切法無我)의 정견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법’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진다.

법은 범어로는 dharma라고 하고 팔리어로는 dhamma라고 하는데 법이라고 하면 우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들 수 있다. 팔만사천법문이라고 할 때의 법이 바로 이런 의미이다.

또 하나는 ‘인(因)’의 의미가 있다 좁은 뜻으로는 깨달음의 원인을 의미하며 넓은 뜻으로는 일체 존재의 원인을 가리킨다. 또한 법이라고 할 때는 종교나 윤리상의 선덕(善德)을 의미한다. “그 사람 법이 바로 섰네” 혹은 “법이 바로 들었네” 등등의 말을 할 때는 이러한 의미의 법이다. 법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으로서는 ‘일체법’이나 ‘제법’이라고 할 때의 법인데 이 때의 법은 일체의 사물이나 현상이라는 의미가 있다. 여기에는 모든 물건, 선법이나 불선법, 정법(淨法)이나 부정법(不淨法), 세간법과 출세간법, 실법과 가법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일체법이라고 하면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나 현상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현상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 오온, 십이처, 십팔계도 당연히 일체법에 포함된다.

이러한 일체 사물이나 현상으로서의 법에는 ‘무아성’이 있다. 어느 것이나 서로 연기하여 의지하고 있을 뿐으로 영원불변의 자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이 ‘제법무아’ 혹은 ‘일체법무아’라고 하는 것이다. 법념처는 이러한 법의 성질을 통찰하여 우리의 전도된 망상을 깨트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다.

세간의 일체 사물에는 변하지 않는 고정의
‘아(我)’라는 것이 없다.

법념처 수행은 이러한 법의 본질을 깨달아
‘연법집아(緣法執我)’의 전도된 망견을 부수기 위한 것이다.

법념처의 수습내용

불교 경전 가운데에서 법념처에 관한 부분은 대동소이하다. 《대념처경》에서는 법념처의 수행방법을 세분하여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 즉 오개(五蓋), 오취온, 십이처, 칠각지(七覺支), 사성제를 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오개를 관하여 제거하라고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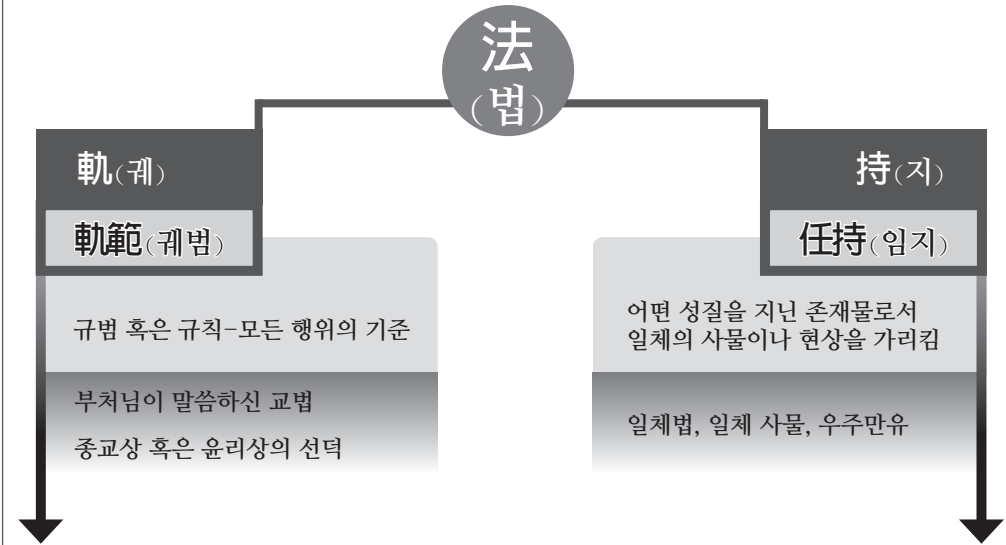
오개는 해탈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이며 이것을 제거한 다음에 차례로 오온, 십이처를 관하고 그런 다음 해탈의 절대적인 조력자인 칠각지를 관하며 마지막으로사성제를 관하라고 하였다.

오개라는 것은 다섯 가지 정신적인 장애라는 의미로 탐욕과 진에, 도거악작(掉舉惡作), 혼면(昏眠), 의(疑)의 개(蓋)이다. ‘개’는 우리의 지혜를 덮은 방해물, 혹은 장애물이라는 의미이다.

오온, 십이처는 이미 아는 바와 같고 도거악작에서 ‘도거’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뒤숭숭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악작’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후회하는 마음으로서 어느 것이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것을 나타낸다. ‘혼면’은 마음이 흐리멍덩한 것이며 ‘의’는 진리에 자신이 없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 마음이다.

중앙교육원장 철학박사 **화 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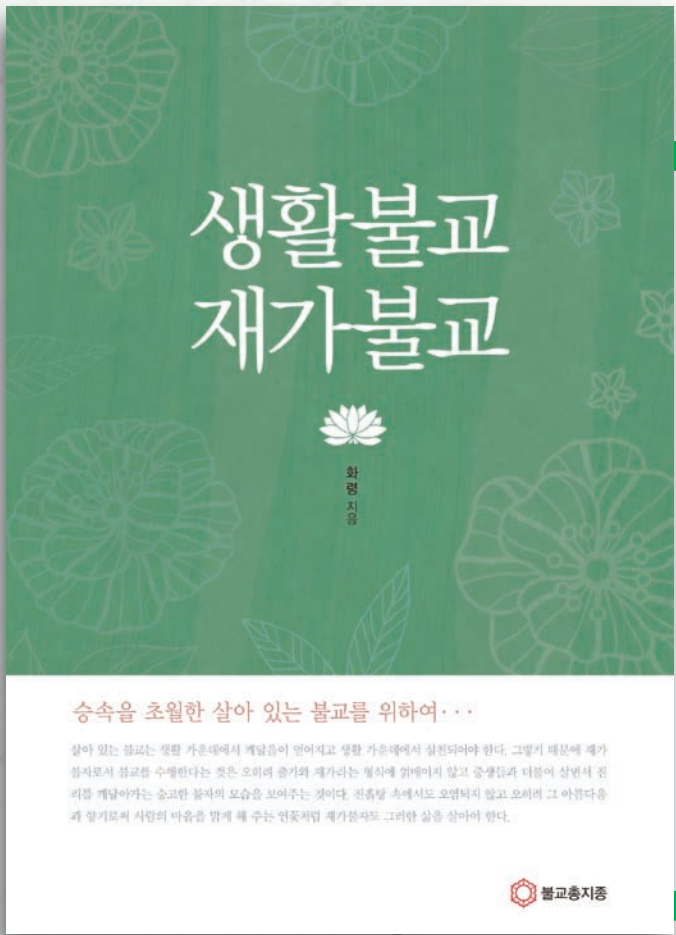
법의 의미



〈법념처 수행의 5종 방법〉

- **觀五蓋 (관오개)** : 중생의 의근 가운데에 뿌리 내린 근본 미혹 해탈을 방해하는 주요 요소 탐, 진, 도거(掉舉), 혼면(昏眠), 의(疑)의 가지가 있음
- **觀五蘊 (관오온)** : 오온은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 오온을 관하여 오온에 대한 집착을 떨치기 위한 것이 목적
- **觀十二處 (관십이처)** : 육외입처와 육내입처의 관찰로 심신의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제어
- **觀七覺支 (관칠각지)** : 깨달음을 이루고 열반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7가지 요소를 관함
- **觀四諦 (관사제)** : 사성제는 불법의 중심으로서 법념처 수행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

생활불교에 대한 사상적 배경과 실천방향을 제시한 책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지향하는 현대인의 필독서



승속을 초월한
살아있는 불교를 위하여

생활불교
재가불교

화령 저 | 불교총지중 발행
정가 10,000원 | 법보사가 6,000원 (10권 이상)

“살아 있는 불교는
생활 가운데에서 깨달음이 얻어지고
생활 가운데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제82회 불교총지종 추계강공 효강 종령 예하 법어 『기상은 높은 산과 같고, 아량은 넓고 깊은 바다』와 같은 스승이 되자

전국의 스승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거제에서 진행되는 제82회 추계강공회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 이곳으로 내려오는 길에 통영 단향사를 잠시 들렸습니다. 넓은 바다에 오목 조목 작은 섬들이 펼쳐진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았습니다. 한려수도의 가운데 위치한 거제에 저는 약 40년 만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아름다운 고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멀리 수평선이 펼쳐진 끝없는 바다를 저는 한 폭의 만다라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만다라가 아주 깊고 무한한 뜻을 내포하는 법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좋은 만다라를 앞에 두고 다시한번 그 의미와 아름다움을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하늘이나 육지에서 흘러드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용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넓은

것이 들어와도 끊임없이 파도가 들었다 나갔다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수행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중단 없는 용맹정진의 수행 정신을 이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말에 “기상은 높은 산과 같고, 아량은 넓고 깊은 바다와 같아라” 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중생 교화를 하는 우리들로서는 교화 현장에서 여러 고통에 처한 중생을 인도하여 불법의 용광로에 들게 하여 모든 업을 소멸 시키는 것이 스승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오늘 이 거제의 바다는 중단 없는 용맹정진과 넓은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포용하여 불법의 세계로 인도하는 우리의 사명을 말없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개강불사에서 ‘새 종풍 운동’을 전 승단이 같이 읽고 서약했습니다. 새 종풍 운동에서도 강조 하듯이 중생교화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쳐야 합니다. 깨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성찰과 계행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여러 계행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종단은 창종 당시 원정 대성사에서 ‘십선회향’을 깊이 생각해서 계율을 잘 지키라 했습니다. 이는 청정한 계율을 통해 지혜를 증득 할 수 있다는 확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창종과 동시에 열린 강공은 종조 원정 대성사가 가장 중요시 한 승단의 수행 방편입니다. 그동안 전국의 서원당에서 교화에 전념하시면서, 매일 행하시는 불공으로 사상 면은 증장되는데 반하여 교상 면이 다소 부족 할 수 있습니다.
교화하는 스승들은 교상과 사상이 하나로 일치해야 합니다. 강공은 스승들의 모자라는 부분을 두루 보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강공에 임해주시기를 비로자나 부처님 전 서원 합니다.



▲ 제 82회 추계강공 법어를 하는 효강 종령 예하

제82회 추계강공 특별 강연

교화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 특별 강연을 하는 기로스승 법공 정사

제 82회 추계강공을 맞아 전국의 스승님들을 다시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교화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들을 후배 스승들께 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평소의 내 자신과 주변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요즘 우리 종단의 교화가 침체되었다는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침체란 전진도 없고 후퇴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교화는 미미하지만은 전진을 하고 발전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그 원인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스승님 개개인과 종단 차원의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통리원장 시절에 앞으로의 교화발전에 상당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걱정을 했습니다. 당시 9개 분과 위원회를

결성하고 적은 인재이지만 잘 활용하여 이 난관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 했었습니다. 9개 분과위원에서 한, 두 개 즉 교화분과위원회, 불사법요위원회 만이라도 상설 기구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평소 생각해 왔던 방안을 오늘 이 기회를 통해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종단은 제가 종단으로 출가 승단 위주인 불교의 사회 환경 속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들이 오히려 유리한 조건으로 활용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통리원에 있을 때 타 종단 사람들과 차를 한잔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현교 스님들이 총지종과 진각종을 아주 부럽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종교는 총지종과 진각종 같은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안 되면 불교의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종교를 상품에 비유를 한다면 문화재급 보물이거나 최첨단의 기기들이 고가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것은 별 가치가 없단 말이지요.
둘째, 스승 입문과 수행 교육의 내실 강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원불교와 우리가 유사한 점이 많고, 선발 종단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원불교 교부(스승) 교육이 9년입니다. 마지막 벽지근무 2년을 포함해서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는 좀 더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길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나, 새로운 것이 형성되기 까지는 소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급히 서두르면 안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통리원 집행부는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방안을 연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는 신뢰받고 존경 받는 스승의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제 개강불사에서 효강 종령 예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기로 스승들은 모두가 공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해 사원의 교화가 부진하다면 다음 몇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 스승의 인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격은 여러 요소가 복합되어 인격이라 합니다. 교도에게 신뢰를 받고, 궁극적으로는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어디에 내 놓아도 빠지지 않을 인격을 갖추어야, 실행도 전달이 잘되고 교화도 되는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이루기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럼 신뢰 받고 존경 받을 수 있는 스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도 미래에는 퇴임을 하고 기로 스승이 되겠지만, 제가 현직에서는 많은 착각을 했습니다. 교도들이 “스승님, 스승님”하면서 따르는 모습을 보고 제 스스로가 착각 한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스승으로 어떤 마음으로 평소 생활을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스승은 의, 식, 주부터가 일반인과는 달라야 합니다. 물론 세속에 있을 때의 습을 하루아침에 버리기 어렵습니다.
먼저 의생활부터 예를 들자면 재가불교로 도심에서 교화하는 입장에서 너무 초라하면 안 되지만, 너무 화려하면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성철스님의 누더기 두루마기는 황금보다도 더 가치를 가집니다. 스스로 검소하고 자제하는 의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불의 도구입니다. 수행과 교화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영양은 공급해야겠지만 그 이상은 수행자로서 과소비입니다. 특히 교도들과 같이 식사를 할 때는 항상 식사를 절제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스승들의 집은 우리 종단의 특성 상 사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도들과 마주치는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살림살이 또한 수행자의 기본자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총지종의 거울입니다. 검소함과 투명함을 생활화해야 교도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총지종의 기본 수행인 염송정진 불공입니다. 물론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불공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불공입니다. “중생성불이 억지 성불이다”라는 말이 습니다. 이는 성불의 과정이 쉽거나 순조로운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종단에는 법으로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스승도 근본적인 목표는 성불입니다. 스승이라는 신분은 성불의 한 과정이며, 교화 잘하는 것이 성불의 지름길입니다. 철저한 수행을 바탕으로 증득한 지혜를 바탕으로 교도들을 대해야 합니다. 항상 불공 이후에 개인이나 공적인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스승은 편의보발의 재가 교역자 일지라도 교도와 사회의 다른 단체 지도자보다 높은 수행력과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후배 스승 여러분 ‘철’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계절을 알아차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철이 언제 드는지는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을 황금같이 여기며, 한 시라도 여영부영 흘러 보내는 것이 아까우면 비로소 철이 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알맹이 있는 시간을 얼마나 축적했느냐에 따라 인생이 좌우 되는 것입니다. 행, 주, 좌, 와, 의 모든 동작을 성불로 나가는 수행의 바탕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사회에서 품행이라 하는데 언제나 단정한 수행자로서의 품행을 쌓아 가시기를 비로자나 부처님 전 서원합니다.

북취, 정리=김종열 기자

실지사 신축불사에 동참하시어 불도(佛道)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 실지사 신축 조감도

은행계좌 : 농협은행 317-0004-3542-81 예금주 (재) 불교총지종 실지사

☎ 02-983-1492 주교 : 법 우 정사 010-3401-6772
인지심 전수 010-9501-6772

종조 원정 대성사에서 비밀의 법장을 펼치시고,
밀교 법문을 설하셨던 도량 「 실지사 」
원정 대성사의 숨결과 가르침이 녹아있는 실지사 신축불사에
종도(宗徒)들의 소중한 보시를 권선합니다.

보시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보시가 법보시(法布施)요,
법보시에 재보시(財布施)를 더하면,
현세에 재난소멸과 일체서원을 이루게 된다.

보시금은 사원으로 직접 전달 또는 은행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보시금을 내실 때, 보시자의 이름, 불공해드리고 싶은 분의
간지(띠)와 이름, 서원사항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밀법도량 불교총지종 실지사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9동 133-9
실지사 주교 : 법우정사 / 인지심 전수
기로스승 연등원 지수 / 신정회장 : 인명화 합장



▲ 제2회 만다라배 불교축구대회 참가 선수 일동

제2회 만다라배 불교축구대회

2013년 10월 19일 (토)
미사리 조정경기장 보조축구장

※ 시상식



▲ 개회식에 동참한 주요 내빈



▲ 대회사를 하는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법등 정사



▲ FC롯데 이동격 단장의 축사

※ 주요 경기 장면



▲ 광동고 사제팀



▲ 봉은사



▲ 롯데FC



▲ 진각FC

- 교훈 : 신의 · 성실 · 정직
- 교목 : 보리수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충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충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제82회 불교충지종 추계강공



▲ 훈항 정공하는 효강 종령 예하



▲ 훈항 정공하는 법등 통리원장



▲ 법어를 하시는 효강종령 예하



▲ 기로스승 법공 정사



▲ 스승들께 거제 특산물을 전달하는 김진곤 동해중 총동창회장



▲ 제82회 추계강공회를 마치며



▲ 주요 종책을 보고하는 통리원장 법등 정사



▲ 주요 현안을 보고하는 총무부장 인선 정사



▲ 보선에서 선출된 신임 중앙종의회 의원



▲ 승단총회



▲ 종강불사



▲ 법등 통리원장의 종책 현황보고를 경청하는 승단



▲ 효강 종령 예하께 인사를 올리는 승단일동



충본사 충지사 응공처(應供處, 공양처) 증축불사 동참 모연

불교충지종 충본사 충지사의 공양처인 응공처(應供處)의 증축불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창종 이후 충지사에서 진행된 많은 불사와 행사에 동참하신 스승님과 교도들에게 협조하고 노후된 시설로 공양에 불편함을 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이번 신축 불사로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보다 넓고 안락한 공간에서 스승님과 교도들의 공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기 42년 을 한해도 잘 마무리 하시고 원하시는 서원, 용맹정진 불공으로 모두 이루시기를 비로자나 부처님 전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전국의 스승님과 교도님들의 많은 성원과 동참 모연을 서원합니다.

동참계좌 : 우리은행 122-094583-01-001
(예금주: 불교충지종)

동참문의 : 불교충지종 통리원 ☎ 02)552-1080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

자비덕행(慈悲德行)의 화신(化身),
석가모니불의 우보처 협시보살

석가모니불의 협시보살로서 ‘지혜의 화신’인 문수보살과 짝을 이루고 있는 보현보살(普賢菩薩)은 석가모니불의 우보처 보살로서 ‘불교의 진리와 수행의 덕(德)’을 나타내는 보살이다. 비로자나불의 협시보살로도 모셔지고 있다. 흔히 흰 코끼리를 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연화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문수보살이 지혜(智慧)를 맡고 있다면, 보현보살은 자비실천의 덕행(德行)을 담당하고 있다. 그 덕행의 서원을 ‘행원(行願)’이라 한다. 보현보살을 말할때 ‘보현행원(普賢行願)’을 빼놓을 수 없다.

보현보살의 행원(行願)은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실려져 있다. 이를 ‘보현보살의 십대원(十大願)’이라 한다. 그 내용은 ‘여러 부처님께 예경’, ‘여래를 찬탄’, ‘공양을 널리 행함’, ‘업장 참회’, ‘공덕 수희(隨喜)’, ‘법륜(法輪) 굴리기를 청함’, ‘부처님께서 항상 세상에 머물기를 청함’,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울 것’, ‘항상 증생을 수순(隨順)할 것’, ‘모두 다 회향할 것’ 등이다. 이 열 가지 원(願)은 모든 보살들의 원(願)을 대표하는 것으로 모든 보살의 발심수행을 일러서 ‘보현보살의 원해(願海)에 들어간다’고 표현한다. 수 년전 대한불교진흥원에서 보현보살의 행원을 기치로 하여 ‘보현보살십대원 실천운동’을 전개한 적도 있었다. 보현보살처럼 우리도 실생활에서 행원(行願)을 실천해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는데, 실천은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수행 덕목이라 할 수 있다.

보현보살의 열 가지 행원을
노래로 읊다

보현보살을 설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으로는 『화엄경』, 『보현행원품』, 『법화경』, 『보현보살권발품』, 『대일경』, 『주심품』, 『불설관보현보살행법경』 등이 있고, 불공 삼장이 보현보살의 행원을 계승으로 읊은 『보현보살행원찬』이 있다. 또 보현보살의 행원을 노래로 지은 이가 있는데 바로 고려시대의 승려인 균여대사이며 그가 지은 노래가 『보현행원가(普賢行願歌)』이다. 이를 『보현십원가(普賢十願歌)』라고도 한다. 전체 11수(首)로 되어 있으며 이두문자(吏讀文字)로 쓰여졌다. 균여대사가 불교의 대중화를 위하여 『화엄경』, 『보현행원품』의 십대원(十大願)을 노래(항가)로 읊

은 것이다. 그 내용은 예경제불가(禮敬諸佛歌)·칭찬여래가(稱讚如來歌)·광수공양가(廣修供養歌)·찬회업가(懺悔業障歌)·상수불학가(常隨佛學歌)·항순중생가(恒順衆生歌)·보개회향가(普皆廻向歌)의 10수(首)와 총결무진가(總結無盡歌)를 합친 11수(首)이다.

부처님의 지극한 자비를 실천



▲ 중국 아미산 만년사의 보현보살상 (한국불교수행단 참배)

보(普)는 ‘모든 곳에 널리 미치고 있다’는 뜻이고, ‘현(賢)’은 ‘가장 뛰어나고 좋다’는 뜻이라 하였다. 즉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원(願)과 행(行)이 모두 평등하고 모든 곳에 널리 미쳐져 그 마음이 묘선(妙善)한 것을 말한다. 바로 그것은 신구의(身口意)로써 보리심을 발하는 것이라고 『대일경소』에서는 설하고 있다. 그래서 보현보살은 오른손으로 삼업묘선인(三業妙善印)을 결하고 있다.

삼업묘선인은 보현보살이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으로 짓는 십선업도(十善業道)의 덕성(德性)이 일체 중생들에게 널리 미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수인(手印)이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약지와 새끼 손가락을 안으로 구부린 모양이다. 널리 보리심을 발한다는 의미이다.

왼손은 연꽃을 들고 있으며 그 연꽃 위에는 보검(寶劍)이 올려져 있다. 연꽃 위의 검(劍)은 번뇌를 끊고 보현(普賢)의 덕(德)을 베푸는 것을 나타낸다. 때에 따라서는 검(劍) 대신에 삼고저(三鈷杵)가 올려져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삼고저는 일체의 장애를 깨뜨려 없애는 것을 상징한다. 또 요령이나 경서(經書)가 올려져 있는 경우도 있다. 요령은 미물이나 무명중생을 일깨우는 것을 나타내고, 경서(經書)는 지혜의 발

현(發顯)·완성을 의미한다.

식각여려를 협시하는 경우에는 오른손을 여원인(與願印), 왼손을 시무외인(施無畏印)으로 결인(結印)한다. 비로자나 불의 협시보살로 모시는 밀교(密敎)에서는 금강살타(金剛薩陀)와 같이 생각하여 대장계 만다라(脫藏界曼荼羅)의 중대팔엽인(中臺八葉院) 속에 두고, 앞서 말한대로 왼손에는 연꽃을 들고 그 위에 검(劒)을 세우고, 오른손은 삼엽묘선(三葉妙善)의 인(印)을 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두손을 합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를 연화합장(蓮華合掌)이라 한다. 연꽃의 합장으로써 지극한 발원을 올리는 것이다.

화려함에 있어서는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 못지 않다. 머리에 화려한 보관(寶冠)을 쓰고 있으며 보관에는 오불(五佛)이 모셔져 있다. 이는 오불(五佛)의 덕성(德性)으로 깨달음을 이룬다는 것을 상징한다.

보현보살은 대개 석가모니불의 협시로 삼존불로 모셔진 경우가 많지만 비로자나불과 함께 모셔지기도 하고 간혹 일존(一尊)으로 모셔지기도 한다. 보현전(普賢殿)에 단독으로 봉안되기도 한다. 보현보살상은 경주 석굴암의 보현보살상이 유명하다. 보현보살의 도량으로 중국 아미산의 보현도량을 들 수 있다. 아미산은 중국 서쪽의 사천성에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현보살을 본존(本尊)을 삼고 있으며, 2005년 한국불교대표단이 중국불교수행을 체험하기 위하여 9박10일간 아미산에 머물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전각(殿閣) 안팎에는 커다란 코끼리 위의 보현보살상이 모셔져 있었고 아미산 최정상의 금정(金頂)에 세워진 금당(金堂)과 보현보살상은 참배객들을 압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밀교에서 ‘진여금강(眞如金剛)’
‘시현금강(示現金剛)’이라 부름

밀교에서는 보현보살을 달리 ‘진여금강(眞如金剛)’이라 부른다. 즉 깨달음, 진여(眞如)의 세계로 인도하는 금강보살이다. 또 ‘시현금강(示現金剛)’이라고도 한다. 중생을 구제하고 깨달음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신구의 삼업으로 보리심을 나타내 보이게 한다 하여 ‘시현금강(示現金剛)’이라 한다. 그래서 보현보살을 달리 ‘보현금강살타(普賢金剛薩埵)’라고도 부른다. 보현보살이 보살 가운데 상수보살이라는 뜻에 보현의 금강살타, ‘보현금강살타’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현보살을 금강살타와 동체

(同體)라고도 한다. 특히 연명(延命)을 수행하는 본존을 별도로 일러서 보현연명보살(普賢延命菩薩)이라 한다.

보현보살은 대장계만다라의 중대팔엽원(中隊八葉院)에 있는데, 동방의 보당여래(寶幢如來)와 남방의 개부화왕여래(開敷華王如來)의 사이에 있다. 만다라상에서 두 시 방향의 위치에 모셔져 있다. 보당여래와 개부화왕여래 사이에 모셔진 것은 보현보살이 보당여래 밑에서 깨달음에 대한 자각(自覺)과 그것을 추구하는 행위, 즉 ‘발심(發心)’을 상징하며, 개부화왕여래 밑에서 보리, 즉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수행(修行)’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 태장계만다라의 문수원(文殊院)에도 보현보살이 계시는데, 문수보살과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 귀퉁이에서 문수보살을 외호(外護)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문수보살의 지혜문(智慧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현보살의 보리심과 자비의 원행(願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깨달음을 이루고 공덕을 성취하는 길은 자비(慈悲)의 실천과 원행(願行)에 있다. 자(慈)는 남에게 즐거움을 베풀어 주는 것이요, 비(悲)는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다. 다음호에서는 지장보살에 대해 살펴본다.



▲ 보현보살도 (일본 이존원二尊院 소장)

초심자들에게는 ‘수행입문서’로,
모든 종도(宗徒)들에게는 ‘수행지침서’로 삼을 수 있는 총지종의 수행 총서(叢書)!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육자의궤 염송

『육자의괘염송』으로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고,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육자의궤의 순서와 방법, 그 의미' 와 함께
충지중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인 목적', '각종 진언의 공덕', '염주의 공덕', '사원에서 의 예절',
'불공 예절' 등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친절하게 실고 있다.



법경 대정사 지음/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발행/ 정가 10,000원 / 114쪽
* 구입문의 : (02) 552-1080~3



제82회 추계강공회 강의

사종수법

밀교연구소장 범경 정사



▲ 사종수법에 관한 강연을 하는 밀교연구소장 범경 정사

사종수법(四種修法)은 밀교의 호마법(護摩法)을 말한다. 이를 사종법(四種法), 사종단법(四種壇法), 사종성취법(四種成就法)이라고도 한다. 호마의 사종법은 식재법, 증익법, 경애법, 항복법이다. 여기에 구소법(鉤召法)을 더하여 오종법(五種法)이라 한다. 식재법은 재난을 소멸하는 법이고, 증익법은 소원성취를 위한 법이며, 경애법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도록 하는 법, 항복법은 일체재난과 원적을 물리치는 법이다. 구소법은 일체중생을 불러들여 제도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호마법은 고대 인도 바라문의 베다에서 유래되었는데, 공물(供物)을 화중(火中)에 던져 신(神)에게 공양을 올리며 평안과 오곡의 풍요를 기원했던 의식이었으나 불교에 유입되면서 지혜의 불로써 번뇌와 재난을 태워 없애는 의례로 발전했다.

총지종은 호마의식을 직접 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외호마라 함), 내호마(內護摩) 로써 사종법을 행하고 있다. 내호마는 관법으로 행하는 호마법인데, 총지종의 사종 호마법은 <준제진언에 의한 사종법>이다. 총지종은 밀교종단으로서 밀교의 호마법을 엄연히 행하고 있다. 준제진언의 사종법이 바로 호마의 사종법인데, 수시로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호마법인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총지종에 호마법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 근거한 준제진언의 사종법이다. 호마와 관련한 진언이나 의식이 밀교의 양부대경 『대일경』과 『금강정경』에 나오고 있지만 총지종은 <준제진언>에 의한 사종의 호마법을 행하고 있다. 『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 나오는 준제진언의 식재법은 ‘옴 자레 주레 준제 ○○생 ○○○ 제재난 사바하’이고, 증익법의 진언은 ‘옴 자레 주레 준제 ○○생 ○○○구소여의 사바하’이며, 경애법의 준제진언은 ‘옴 자레 주레 준제 영일체 인경에 ○○생 ○○○사바하’이다. 항복법은 종단에서 사용을 유보하고 있다. 총지종의 성직자들은 매월 첫째주에 식재법의 종자(種子)인 ‘바’자를 관하고, 둘째주와 넷째주에는 증익법의 진언종자인 ‘야’자를 관하며, 셋째주에는 경애법의 진언종자인 ‘하’자를 관한다. 이번 강공회에 배포한 『육자의괘염송』 책자에 상세히 설명해 있으므로 참고하여 행하도록 한다.



▲ 대일경의 실지 3종법을 강의하는 범일 정사

종단의 소의경전인 『대일경(大日經)』과 『대일경소(大日經疏)』의 밀교의례인 관정, 호마, 식재법을 포함한 실지3종법을 통하여 제재초복(除災招福)를 기원하며 발전한 밀교의례가 단순히 개인의 재난소멸과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세간(世間)용으로만 발전한 것이 아님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일경』에서는 식재(息災), 증익(增益), 항복(降伏)의 세 가지를 들고 있고 『금강정경(金剛頂經)』계에서는 경애(敬愛)와 구소(鉤召)를 더하여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여기에 연명법(延命法)을 더하는 경우도 있다. 『대일경』 6권과 7권에 실지3종법

인 식재, 증익, 항복과 함께 구소법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식재(息災)란 재난(災難)을 그치게 한다는 뜻으로 자연으로 인한 재해(災害)나 귀신(神), 질병, 국난 등의 재난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 『아타르바베다』에는 뒷날 초기 밀교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재초복(除災招福)적인 면이 반영되어 있는데 바라문들은 주법(呪法)이 가지는 신비한 힘과 일정한 주문(呪文)과 작법(作法)의 효력에 의하여 그들이 바라는 바를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아타르바베다』의 여러 가지 주문(呪文)과 작법(作法)이 밀교의 의계(儀軌)로 다듬어졌다. 밀교에서 정한 규정대로 단을 쌓고, 목적에 적합한 본존을 모시고 갖가지 공양과 호마를 행하는데 임으로는 진언을 외우고, 손으로는 결인을 맺고 마음속으로 본존불을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행자(行者)와 본존과의 각기 삼밀이 일치하는데[三三平等], 그것에 적중하는 성과(悉地)를 획득하는 작법이다. 적합한 목적과 적중하게 만드는 행법에 3종법, 4종법, 5종법 등으로 분류되었다. 『대비로자나경공양차제법소』 「비밀사업가해문」인(因)에서 과(果)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 뜻이 있다. 그 가운데 “작재(寂災-제재)란 또는 심념송(心念誦)을 통하여 삼목의 번뇌가 본래 생겨나지 않음을 깨달으면 작재라 말하게 된다. 증익(增益)이란 번뇌가 생겨나지 않음을 깨달은 지(智)가 바로 불과(佛果)이며, 불과를 얻었으므로 증익이라 말한다.” “항복심(降伏心)에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첫째는 부처가 된 이후에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항복이라 말하며, 둘째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 만가지의 덕을 섭수(攝受)할 수 있으므로 또한 섭소(攝召)의 뜻이 있다.” “흰색은 둥근 단이고, 황색은 사각형의 단이며, 적색은 삼각단이고, 흑색은 팔각단이

좌선 수행의 형식과 방법에 따른

다라니 염송법의 기본자세

밀인사 원당 정사



▲ 진언염송의 기본자세를 강의하는 원당 정사

면서 ‘옴마니반메훴’ 이외에 다른 생각 들어오지 않도록 집중하여 염송한다. 이렇게 호흡과 함께 생각 생각에 ‘옴마니반메훴’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염염상속(念念相續)한다. 만약 염송 도중에 잡념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도 말고 이끌려가지도 말고 알아차린 즉시 ‘옴마니반메훴’ 염송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가며 몰입해 들어가다 보면 ‘호흡’과 ‘옴마니반메훴’과 ‘마음’이 서로 상응하게 되어 삼매를 증득하고 본심체를 얻게 되는 것이다.

『대일경(大日經)』의 실지3종법

벽통사 법일 정사

니 바로 여덟 연일의 연화도량이다.” 종조법설에 따르면 “밀교본신 양인교로 현세정화(現世淨化) 위주하며 밀교본신 양을 쓰고 일요 자성 날을 한다. 현세안락 서원하여 이 땅 정토(淨土) 만드므로 진호국가(鎮護國家) 서원으로 자기성불 하기위해 식재증익(息災增益) 경애항복(敬愛降服) 사종법(四種法)을 수행하니 국민 모두 안락하고 국토 모두 성불된다. 이것이 곧 오는 세상 몇 천겁을 기다려서 성불함이 아니므로 즉신성불(即身成佛) 이라한다.” 끝으로 일상생활과 병행하기 쉬고 이해와 실천이 쉬운 수행법으로 포교할 대안이 바로 총지종에서 수행하고 있는 4종 수법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법장원 도서 대출 안내

불교총지종 법장원이 보유한 도서를 총지종 스승과 교도들 에게 대출해 드립니다.

- | | |
|---|---|
| * 대 상 : 불교총지종 스승 및 교도 | 2. 대출된 도서의 배송 |
| * 대출 방법 : | -대출자가 스승님일 경우 : 소속 사원으로 배송 |
| 1. 총지종 홈페이지에 첨부된 엑셀 파일에서 원하는 도서 검색 가능 | -대출자가 교도님일 경우 : 소속 사원으로 배송해 스승님께서 교도께 전달(보낼 때는 종단 부담, 반납하실 때는 대출자 부담) |
| -법장원도서(불교전문도서) | 3. 대출 기간 : 대어일로부터 1개월 |
| -불광 도서(불교일반도서) | 4. 대출 담당자 및 기타 문의사항: |
| 도서 목록에 있는 도서 중 대출 할 책을 지정해 대출 담당자 에게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법장원 배공주 계장 02) 552-1080 |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 전화문의 _ 불교총지종 통리원 02) 552-1080
각 사찰 주교님께 문의하셔도 구입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_ 우리은행 1005-480-047811
(재) 불교총지종 유지재단

1. 만다라 세트 (금강계 만다라 +태장경 만다라)

33cm X 33cm (액자포함)
30,000원



금강계 만다라 _ 金剛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서만다라고도 하는 이 만다라는 금강정경에 근거해 그려졌다.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냈 것이다.



태장경 만다라 _ 服藏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정확하게는 대비 태장생 만다라이다. 대일경에 근거해 그려진 이 만다라는 태아가 모태 속에서 생육되어 가는 것에 비유해 대일여래의 보리심이 모든 생성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 가정다라니

46cm X 27cm (액자포함)
27,000원



가정다라니

다시 **우리시조** 읽는

초가 암자 쓸쓸한데

지은이: 김수장



▲ 김정희의 세한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초가 암자 쓸쓸한데 벗 없이 혼자 앉아
평조 한 곡에 흰 구름이 절로 돈다
어느 뉘 이 좋은 뜻을 알 이 있다 하리오

초암(초암)이 적막(적막)한데 벗 업시 혼자 안자
평조(평조) 한 님배 백운(백운) 절로 돈다
어느 뉘 이 도흔 뜻을 알 니 있다 하리오

지은이 김수장(김수장)은 조선시조를 대표하는 유명한 가객이었다. 라이벌 가객인 김전택이 청구 영언을 편찬하자 김수장은 해동가요를 내 놓습니다. 서울 화개동에 노가재라는 초가집을 짓고 가난의 풍파 속에서도 시세에 영합하지 않고 음악과 시조를 사랑하는 가객으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이 시조는 초암에 홀로 앉아 편안한 마음으로 '평조한님'이라는 노래 한곡을 부르자 주변의 흰

구름이 절로 돈다고 표현 했습니다. 구름속에 앉아있는 듯한 편안한 상태, 그 마음을 다른 사람은 이 알 리가 합니다. 원래 가곡은 시조를 느리고 길게 큰 음의 변화 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런 가곡은 사람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데 효과적입니다.

편집, 정리 = 편집위원회

유 물 로 보 는
비로자나불



▲ 보물 제 335호 경북대 소장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제335호, 석조비로자나불좌상 (石造毘盧遮那佛坐像)

소재지 : 경북대학교박물관
시대 : 통일신라

석조비로자나불좌상(石造毘盧遮那佛坐像)은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석조여래좌상으로 통일신라 후기에 유행하던 비로자나불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머리에는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붙여 놓았으며 얼굴은 몸에 비해 크고 둥글다. 당시 비로자나불의 얼굴이 단정하면서도 엄숙한 인상인데 비해서, 이 불상의 얼굴은 풍만하고 눈과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옷은 양 어깨를 두껍게 감싸고 있으며 옷주름은 형식적으로 처리된 모습이다. 어깨가 좁아서 체구가 현저히 왜소해진 모습이며, 양 발을 무릎에 올리고 발바닥이 하늘을 향한 자세로 앉아 있다. 손은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싼 모습으로 비로자나불이 취하는 일반적인 손모양이다. 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형상화한 광배(光背)는 배(舟) 모양으로 불상에 비해 매우 크게 표현되었다. 광배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있는 작은 부처 5구가 새겨져 있고, 가장자리에는 불꽃무늬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불상이 앉아 있는 8각의 대좌(臺座)에는 화려한 꽃무늬와 동물상 등이 새겨져 있으나 상당히 형식적으로 처리된 모습이다. 좁은 어깨와 밋밋한 가슴, 작은 체구, 옷모양 등에서 당시 비로자나불의 일반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 신라 경문왕 3년(863)에 만들어진 동화사 석조비로자나불(보물 제244호)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문화재청



내용참조: 불교총전 442p 자기에 대한 덕의편



대동농원

경북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896번지
연락처 010-3537-3090

불교총지종 단음사 신도: 정점락 각자

100% 국내산
친환경 아로니아 (블랙 초코베리)

1 kg 20,000원

성분 및 효능

●시력개선 효과 ●변역력, 기억력 강화 ●혈관질환 예방과 개선 ●노화방지, 다이어트 효과

지구상 현존하는 과수 중 안토시아닌 성분 (블루베리의 4배, 크린베리의 10배, 복분자의 20배, 포도의 80배)과 폴리페놀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연구결과 심혈관(동맥경화), 뇌신경, 각종 암, 당뇨, 위장질환, 신경질환, 시력장애, 비만, 불임, 류마티스, 강장 등 강력한 황산화 작용을 통해서 면역체계를 형성하는데 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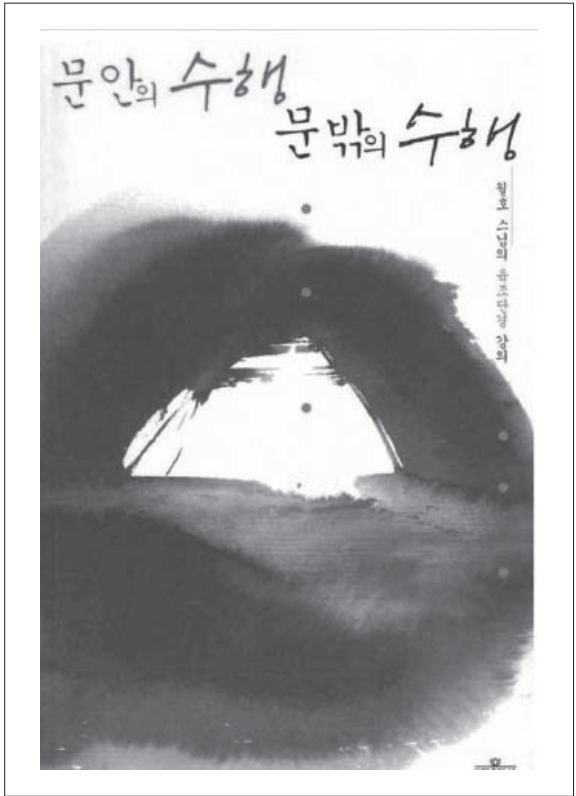
복 용 방 법

- 생과로 먹을 시에는 하루 20~30알 내외로 먹어주면 좋다.
- 요구르트나 우유 또는 꿀을 첨가해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맛있게 드실 수 있다.
- 분말로 드실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타서 먹거나 샐러드나 아이스크림 등 음식 먹을 때 뿌려 먹으면 된다.
- 원액을 마실 경우 30~50ml 를 매 식사 20~30분 전에 물에 타서 마시기를 권장한다.



깨친다는 것은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문안의 수행 문밖의 수행>



달마스님을 만난 한두제는 자라럼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은 고승대덕에게 보시도 많이 했고, 불사도 많이 했는데 자신의 공덕은 얼마나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본인의 공덕이 크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큰 스님으로부터 확인하려는 의도에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달마스님은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뜻밖의 답변에 한무제는 화가 나서 달마스님을 자기 나라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은 스님에게 분노를 느낀 것이지요.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달마스님을 엉터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불교에 비추어 봐도 달마스님의 답변은 논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한무제의 혼란은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공 심외면 공이 난다는 것이 불교의 인과법이기 때문에 많은 불사와 보시를 한 한무제에게 공덕이 많은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도 마땅히요. 그런데 달마스님은 이 논리를 부정한 것입니다.

달마스님은 인과법을 넘어서는 불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달마스님의 선불교는 혜능스님에게 이어졌으며, 육조 혜능스님은 〈육조단경〉을 통해 선불교의 정수를 설하셨습니다.

월호스님의 <육조단경> 해설서인 <문안의 수행 문 밖의 수행>은 <육조단경>을 대중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오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라는 책을 통해 불교 베스트셀러 작가의 변역에

오른 월호스님은 쉬우면서도 명쾌하고 또한 현대적 화
법으로 <육조단경>을 강의했습니다.

원래 부처님의 말씀을 경전이라고 하는데 혜능스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육도단경>을 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혜능스님이 당나라 시대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설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혜능스님의 말씀이니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책 〈문안의 수행 문밖의 수행〉이라는 책을 보면 한무제의 불교는 문밖의 수행이었고 달마스님의 수행은 문안의 수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무제와 달마스님 사이에는 문이라는 것이 가로놓여 있고, 이 안팎 사이에는 다른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문은 바로 돈오문(頓悟門)을 말합니다. 문 안의 수행은 돈오문 안으로 들어온 이후의 수행, 즉 단박 깨친 이후의 수행을 말하며, 문 밖의 수행은 아직 깨지기 이전의 수행을 말합니다. 깨친다는 것은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성품은 공한 것입니다.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품을 보고 난 이후의 수행은, 본래 닦을 것이 없음을 알고 닦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성품을 보기 이전의 수행은 정말 뉘엿뉘엿이 있다고 생각하며 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몸과 마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성품의 문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머리말 중에서)

그러니까 <육조단경>은 문안의 수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안의 수행은 범부가 행하기에 다소 어렵게 느껴집니다. 삼강이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집니다. 실제 선훈교는 동북아시아에서 주류 불교로 자리 잡았기는 하지만 대중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품을 보면 부처를 이룬다’를 핵심으로 하는 선불교가 근기가 높은 사람들의 것인가에 대해서 해능스님은 우둔함과 지혜에는 차등이 있지만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하기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꾸준하게 망상과 욕심을 제거해 나가면 어느 순간 성품을 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근기가 낮은 사람도 차근차근 수행해나
가면 '견성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선불교에서는
'성품을 본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도대체 성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
다. 아마도 이런 의문이 선불교 수행의 시작일 것 같습
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13900원

자유기고가 김은주

제82회 추계강공회 강의

일본의 재가불교 입정교성회와 창가학회

법장원 연구원 보 정(김종인)



▲ 일본 재가불교를 강의하는 법장연 연구원 보장

일본의 재가불교는 신종교의 한 형태로 근대사회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었다. 사회적 혼란기에 신흥종교의 깃발을 들고 기성 정권에 도전하는 일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매우 흔한 일이었다.

임정교성회와 창가학회의 출발과 성장이 일본 현대사회의 성장과 궤를 같이한다. 임정교성회는 1925년에 레이유카이로 출발했는데, 임정교성회(立正佼成會)로 분리된 후 1998년에 신도수가 220만 세대에 이르게 된다. 창가학회의 경우 1930년에 설립되어 1995년에는 812만 세대에 이른다.

시골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이들은 가난과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소외를 겪을 수밖에 없다. 임정교성회는 이들이 도시에서 겪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교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정교성회의 멤버들은 종교적 행위와 경제적 상호 부조를 실천했다. 새로이 근대 도시에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다친 문제는 경제적 궁곤만이 아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삶의 의지처다. 의지처가 없는 이들에게 삶의 의지처가 될 수 있음을 확신시켰다고 할 수 있다. 임정교성회는 이것을 가족의식의 부활에서 찾았다. 임정교성회 신앙의 핵심 요소 하나는 조상숭배인데, 임정교성회의 조상숭배는 전통적인 가족가치의 부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직을 하나의 삶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회원들의 소외된 도시에서 삶에 안식처를 제공한 것은 예의 창가학회 역시 마찬가지다. 창가학회는 인생의 행보를 종교적 목표설 설정하고 이(利)와 미(美)와 선(善)이 그러한 목표의 실현이라고 보는데, 이 중에서도 선(善)의 실현을 궁극적인 것으로 본다. 이나 미가 수동적인 것임에 비해 자신이 미 또는 이를 타인에게 나

국립중앙박물관 불교회화실 정기 교체전시
새롭게 선보이는 불화들

○ 전시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2층 서화관 불교회화실 / ○ 전시작품 : 조선 전기 〈감로도〉 등 25건 25점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상설전시관 2층 불교회화실 전시품들
 함께 교체하여 선보인다. 이번 불교회화실 교체전시에서는 극락과 지
 , 죄와 심판, 영혼의 구제 등 불교적 사후세계관을 담고 있는 아미타
 회도, 지장시왕도, 현왕도, 감로도 등이 대거 전시된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전시품은 단연 일본에서 돌아온 조선 전기 〈감로도〉다. ‘감로도’란 죽어서 구제받지 못하고 아귀도에 빠진 영혼들에게 불교 의식을 통해 감로(甘露)를 베풀어 구제하는 모습을 그린 불화를 말한다. 매우 희귀한 조선 전기 감로도로서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이 〈감로도〉는 1973년 12월 14일 대한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되었다.

로도)는 일본 겐토쿠(元祿, 1688~1703) 시대부터 일본 교토의 사찰 류간사(龍岸寺)에 소장되어 전래되었다고 전해진다. 기증자인 류간사의 주지 에지마 고도(江島孝導) 스님은 당시 관련 학자들을 통해 이 불화가 한국의 문화재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이 불화의 고향이자 이 불화의 의미를 가장 잘 살려 줄 한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뜻에서 기증을 결심하였다고 하여, 문화재 기준뿐만 아니라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환수에서도 뜻 깊은 사례로 남긴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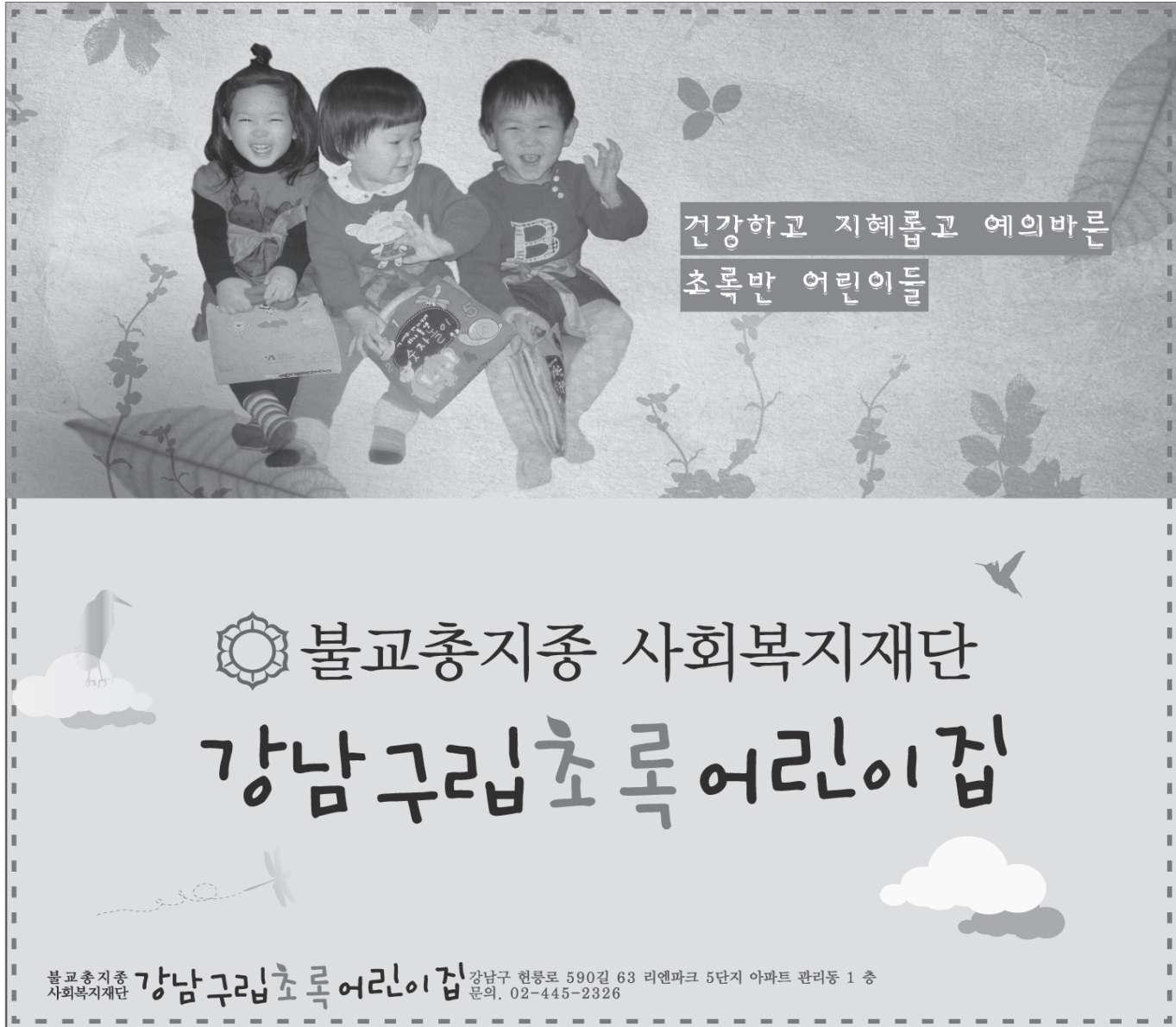
자료제공=국립중앙박물관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일원 어린이집



· 맑고 밝은 어린이 · 자율적이며 더불어 함께 크는 어린이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 · 이웃, 나라,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일원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불교총지종 삼밀사 외부(마당) 관세음보살 입상 조성 권선문



성도합시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관세음보살 입상을 불교총지종 삼밀사에 조성하여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광명과 원력을 구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불사의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불지 위에 올라 있으면서도 대자대비를 베푸시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으로 손이 천이며 눈이 천이나 되시는 분으로서 극락세계에서 아미타불을 보팔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곳에 나타나시어 중생의 형편을 살피시고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구원해 주시는 대자대비하신 분으로 관자재보살님 이라고도 합니다. 고해 중생의 간절한 염원을 비추어 보시고 구원의 자비를 베푸시고 불안과 공포가 없는 마음을 주시는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불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관세음보살님 불사는 스스로 반드시 성불하겠다는 서원과 자신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장애, 난관을 극복하기를 기원하는 호신불 불사이기도 합니다. 이차인연 공덕으로 뜻하는 바 소원이 성취되고 지혜와 복덕이 구축하여지며 자손은 창성하고 가내가 평안하여 만복이 깃들기를 서원합니다.

- 삼밀사 주 교 : 서령 정사, 혜원정 전수
- 삼밀사 신정회장 : 김화자
- 삼밀사 부회장 : 배숙자, 하명순 외 신정회 일동
- 후견인 기로스승 : 의강 종사, 원송 종사, 인법계 지수
- 문 의 전 화 : 삼밀사 051-416-9835

• 모연 계좌번호 국민은행 110-25-0005-939
(불교총지종 삼밀사)